©윤현상재 Space B–E

재료의 사유

문의 Space B–E (02)540–6650 www.spacebe.co.kr

‘예술’의 경계가 명확하던 때가 있었다. 세월의 흐름은 수많은 재료를 출현시켰고, 다양한 기법과 사상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포름알데히드에 담긴 사체가, 다른 작품 위의 낙서가, 거리 벽면을 뒤덮은 그래피티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시대다. 물질로서 예술을 정의하는 시대가 아니라, 철학적 가치를 주시하는 시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 예술로서의 가치를 좌우하는 만큼 그 기준도, 경계도 불확실해졌다. 세상엔 수많은 장르의 예술이 존재하며 누군가는 그것을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 무엇 하나를 정답이라 상정할 수도 없다. 기준이 불명확한 사안은 평가도 불가능하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무한한 재료와 가능성을 품게 된 셈이다.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예술관을 표현할 재료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한 만큼 재료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의도에 맞는 적확한 재료를 고르는 일이 작품의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pace B–E는 이 같은 ‘재료’에 주목했다. 창작자가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 의식의 변화에 따른 재료 선택의 변화 등을 조명하는 전시 ‘재료의 사유’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시에 참여한 권용주, 박종진, 강원제, 김희라 작가는 석고와 점토, 캔버스 등 여러 재료를 탐구하고, 그들 사유의 흐름을 물질로 치환해 빚어나간다. 전시는 5월 20일까지 이어진다.

metaphorically

1
©윤현상재 Space B–E

2
©윤현상재 Space B–E

3
©윤현상재 Space B–E

4
©윤현상재 Space B–E

01_ 권용주, Casting
02_ 박종진, Artistic Stratum
03_ 강원제, By–product, Weighty painting
04_ 김희라, Monologue